**갈라디아서** 9/2/16, 6/15/20

**제목과 배경**: 유대주의자들이란 구약의 율법적 의식을 중시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말한다. 바울이 갈라디아에 교회를 훌륭하게 세우자, 그들이 뒤따라가서 이방인 개종자들도 율법의 의식들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. 이는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므로 추종자들을 얻기 위해 율법을 부정함으로써 복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. 바울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다.

**저자와 기록 연대**: 저자는 바울 사도 (1:1)이며, 기록 연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주후 50년 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.

**주제**: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배격하고, 이신칭의의 교리를 변호함과 동시에 바울의 사도직의 진정성을 옹호하기 위한 편지이다. 신약의 핵심 진리를 유창하고 열정적으로 변호한 글로서,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(이신칭의),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화됨을 역설한다: 칭의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며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(선물)이며, 성화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.

**개요**

I. 서론 (1:1-9)

가. 인사 (1-5)

나. 책망 (6-9)

II. 개인적 변호(1:10-2:21): 사도직의 진정성

1. 바울의 복음은 직접 계시를 통해서받은 것 (1:10-12)
2.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무관한 것 (1:13-2:21): 증거들을 제시함

1. 회심 초기 활동 (1:13-17)

2. 회심 후 첫 예루살렘 방문 (1:18-24)

3. 두번째 예루살렘 방문 (2:1-10)

4.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함 (2:11-21)

III. 교리적 변론: 기독교 신앙과 자유 (3-4장)

1. 갈라디아 신자들의 복음 체험 (3:1-5)
2. 아브라함의 체험 (3:6-9)
3. 율법의 저주 (3:10-14)
4. 약속의 우선성 (3:15-18)
5. 율법의 목적 (3:19-25)
6. 종이 아니라 아들/상속인 (3:26-4:11)
7. 율법으르부터 자유하라 (4:12-20)
8. 하갈과 사라의 비유 (4:21-31)

IV. 실제적 변론: 크리스천의 자유를 실천하라 (5:1-6:10)

1. 자유에로의 호소 (5:1-12)
2. 성령을 따라 살라 (5:13-26)
3. 서로 돕는 삶 (6:1-10)

V. 결론 (6:11-18)